

# 最大 當面課題로 浮上한 會費未納會員 問題

## 最高知性人인 齒科醫師의 矜持를 意識하기를

— 規定遵守促求, 단계적 제재조치에 앞서 회원 스스로가 최소한 회비는 납부해야 하지 않는가? —

齒協은 연례적 최대의 당면과제인 연회비 납부의 부진을 타개키 위해 빠른시일내 새로운 개선방안은 물론 미납된 회원에게는 정관 및 규정에 따른 적절한 징계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齒協은 지난 14일 정기이사회에서 醫療人 단체의 회비가 완납되지 않는다는 그 자체가 이상한 현상 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올 회기내에 미납회비의 완결이 마무리되도록 집행부는 모든 지혜와 노력을 총동원, 강력한 추진을 다짐하는 한편 1차적으로 오는 2월말까지 연회비 미납자에게는 명단공개의 1단계 제재조치를 검토기로 결의했다.

이날 이사회는 또 총회에서 결의된 예산과 사업 계획이 회비미납으로 인해 커다란 차질을 초래한다면 의료인의 긍지와 함께 法定단체로서의 설립목적에 최대의 현안문제라고 지적하고, 능동적인 사업추진, 회무운영의 활성화등을 위해 전국지부에 1단계의 제재조치에 앞서 「회비 및 부담금」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촉구키로 했다.

한편 개업·공직등 회원들은 齒協의 「회비규정」에 따라 매년 신상신고 기간중인 5월내에 전액을 납부해야 탄력성있고 활발한 정책 및 사업추진을 시행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는 종전과 같이 회기년도 말까지만 아롱든 납부하면 된다는 타성과 사고방식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19일현재 齒協이 집계한 82년도 연회비 납부현황에 따르면 총예산 1억5천여만원중 63%의 9천 4백50만원이 납부됐는데, 인천, 충남, 전남, 제주등 4개지부는 할당액의 1백%를 넘어섰고, 경기, 강원, 충북등은 1백% 육박하는 반면, 서울, 전북, 경북, 공직등의 지부는 50%에 머물고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齒協의 「회비규정」에는 매년 6월15일까지 각지부장이 회비를 정리, 납부자 명단과 함께 齒協에 송부토록 되어 있다.



### 회비 납부 현황

83. 1. 19 現在 (단위: 천원)

지부별	82년 회비			81년 회비		
	할당액	납부액	납부율	미납액	납부액	미납잔액
서울	71,010	35,326	50	18,310	10,987	7,323
부산	13,010	11,110	85	930	1,440	510
대구	7,710	4,080	53			
인천	3,840	4,230	110			
경기	7,860	7,810	99	520	120	640
강원	2,850	2,740	96	220	60	280
충북	2,680	2,630	98	190		190
충남	6,210	6,480	104	400	330	70
전북	2,620	1,080	41	40		40
전남	4,280	4,300	100.05	250		250
경북	5,070	1,830	36	4,890	2,040	2,850
경남	6,430	3,030	47	670		670
제주	850	1,030	121	200		200
군진	6,120	4,390	72	2,580		2,580
공직	10,250	4,460	44	4,020	3,390	630
합계	150,790	94,526	63	31,260	18,367	12,893